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문제해결 대처의 매개역할

원 두 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사이의 관계를 구조 방정식 모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중고생 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변인들 간의 가설적인 관계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문제해결 대처를 촉진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수용되었다. 즉, 사회적 지지는 희망과 문제해결 대처를 부분매개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심리적 웰빙에 기여하는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대처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관련된 시사점과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사회적지지, 희망, 문제해결 대처, 청소년, 심리적 웰빙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원두리, (305-764)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Tel: 043-261-3626, E-mail: mkdoo@freechal.com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긍정적 특성들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Ryff(1989, 1995)가 제안한 것으로 자기실현적인 웰빙 개념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6개의 주요 요인들로 구성되어있다. 첫째, 자기-수용(자신의 한계나 과거를 수용하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는 것), 둘째, 개인적 성장(자신의 잠재력과 재능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 셋째, 삶의 목적(자신의 경험에서 의미와 방향 감을 찾고 목표를 창출하여 추구하는 것), 넷째,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온정적이고 신뢰로운 대인관계를 갖는 것), 다섯째, 환경통제력(개인의 욕구에 맞게 환경을 다루어가는 것), 여섯째, 자율성(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Ryff와 Singer(2003)는 웰빙이란 부정적 감정이나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변화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았다. 즉 삶의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어려움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의 기회로 여기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찾아보고 개인의 효능성을 확장시켜가며 복잡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잘 다뤄나가고, 주위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자신의 내적 신념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참여하는 삶을 심리적 웰빙으로 보았다.

Khan과 Husain(2010)은 최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들이 복잡한 삶에서 도전하도록 준비하는 긍정적 강점들과 주관적 안

녕감을 발달시키는 것을 돕는데, 사회적 지지는 주관적 안녕감을 이끄는 긍정적 강점들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최근 국내 청소년의 웰빙에 관한 몇몇 연구들에서도 청소년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박영신과 김의철(2009)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자원으로서 자기효능감, 관계적 자원으로서는 정서적 지원, 경제적 자원으로서는 가정 월평균수입 및 학업성취가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관계적 자원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고하였다. 즉,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충분한 정서적 지원은 한국 청소년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서 청소년들의 행복에 매우 큰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청송(2009)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은 사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인 평가적 지지의 정도였다. 즉,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지지적 분위기(평가적 지지)를 느낄 때 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고취시킨다는 연구들이 있다. 희망은 안녕감에 특히 확고한 예측인자로 알려져 있다(Snyder, 2004). 암 환자나 만성질환자들의 삶의 질에 사회적 지지와 희망이 영향을 주며(김경옥, 조복희, 2001; 태영숙, 강은실, 이명희, 박금자, 2001), 사회적 지지는 자기관리와 희망의 예측인자로서, 심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더 많은 희망을 가졌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용기를 얻고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켜 희

망을 증진시키는 것 같다(Wang, Chang, Shih, Sun, & Jeng, 2006)고 하였다. 또한 장효진과 임정하(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특히, 문제상황이나 의사결정상황에서 부모에게서 받는 충고나 조언, 지식 등의 정보적 지지와 친구들 사이에서 인격적인 존중과 칭찬을 받는 평가적 지지가 청소년의 희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Miller와 Power(1985: 장효진, 임정하, 201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희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개인마다 그 원천이 다르지만 흔히 개인의 믿음, 타인과의 관계,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 어떤 것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부터 생긴다. 이러한 희망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도움과 지지가 중요하다(McGee, 1984: 장효진, 임정하, 2010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즉, 희망은 개인을 둘러싼 의미 있는 타인들이 제공하는 사회적지지 및 도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및 우울증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조한익(2010)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희망을 매개로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

한편 희망은 대처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다. 대체로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주는 대처방식은 적극적인 혹은 문제중심적인 대처라고 알려져 있다. 적극적 대처전략은 정보나 충고를 수용하고 문제해결의 노력을 보이는 등의 기능적인 측면과 관계가 있고(Seiffge-Krenke, 1995: 한상철, 2001에서 재인용), 문제 중심의 적극적 대처는 우울과 나쁜 신체건강을 예방할 수 있다(Lohman & Jarvis, 2000: 한상철, 2001에서 재인용)고 알려져

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둔 적극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는데 목표를 두는 반면 정서중심의 소극적 대처전략은 그 상황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유해한 상황을 단지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불편함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으로(Lazarus & Folkman, 1984: 한상철, 2001에서 재인용), 소극적 대처양식은 정신병리적 문제를 지닌 아동과 청소년 및 우울증과 낮은 자기존중감을 지닌 청소년들과 높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Dumont & Provost, 1999: 한상철, 2001에서 재인용). 대체로 많은 연구결과들이 적극적 대처전략이 소극적 대처전략보다 청소년의 충동적 문제행동, 알코올 장애 및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Lohman & Jarvis, 2000: 한상철, 2001에서 재인용).

조현주(2010)는 희망이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정적상관을 보여 희망이 문제를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생활스트레스를 조절하게 됨으로써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희망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극복할 많은 대처 전략을 생성해 내고 그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구되도록 동기화하고 장애에 부딪치면 유연하게 대안 목표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yder, 2000: 조현주, 2010에서 재인용). Snyder 등(1990: 조현주, 2010에서 재인용)은 희망이 높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면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꺼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동기화되기 때문

에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적응적으로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목표를 추구하도록 에너지를 활성화하므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 불편감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Shorey, Snyder, Yang & Lewin, 2003; 조현주, 2010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Chang(1998)은 희망이 높은 대학생들이 문제해결능력이 더 크고 학업 스트레스상황에서 비참여적 전략을 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희망이 높은 학생들은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찾는 문제해결능력은 더 높고 회피를 덜할뿐더러 학업관련 삶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희망에서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은 대처전략 중 문제해결대처, 인지적 재구조화, 정서표현, 사회적지지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지 소망적 사고, 자기비판, 사회적 철수 등 비참여적 대처방식은 유의하게 덜 사용하였다. Roesch, Duangado, Vaughn, Aldridge와 Villodas(2010)도 성향적인 희망이 청소년들의 일상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희망은 직접적인 문제해결, 계획, 긍정적 사고, 종교적 대처등과 정적 관련이 있었다.

김남희(2006)의 연구에서는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는데,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회피적 대처방식보다 접근적 대처방식을 선택하고 난관에 대처함으로써 더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지지도 대처방식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김현준(2009)은 대처의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성질에 초점을 맞춘 주도적 대처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문성원과 한종철(1996)도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사건을 통제가능하고, 불확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고,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을수록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이 늘어난다고 보고하였다.

덧붙여, 사회적지지, 희망, 그리고 대처전략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된다는 연구들(Benight, 2004; Charuvastra & Cloitre, 2008; Glass, Flory, Hankin, Kloos, & Turecki, 2009에서 재인용)이 있다. Glass 등(2009)은 사회적지지, 희망 및 대처가 외상적 사건에 따르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고유한 효과를 조사하여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회귀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와 희망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부적영향을 주고 회피적 대처가 정적영향을 주었으며, 희망이 대처방식이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알아본 결과 회피대처와 희망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만이 유의하여 희망이 회피대처와 심리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조절한다고 하였다.

김택호와 김재환(2004)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위험요인보다 보호요인이 더 중요하며 희망, 교사지지 및 삶의 의미라는 보호요인이 학교생활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하며 탄력성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유의하게 구분하는 보호요인이었다고 하였다. 이들은 희망과 삶의 의미가 어떤 과

정을 거쳐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지와 희망과 삶의 의미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들이 개발되어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데, 사회적 지지는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문제해결대처방식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문제해결 대처방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고, 희망도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대처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가설적 관계를 구성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문제해결대처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요인들 간의 관계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해 보았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1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 학생들로 전체 267명(남자 133명, 여자 134명)이었다. 평균 나이는 14.95세($SD=1.34$)로 12세에서 18세의 범위였으며 14세-16세가 74%였다.

측정도구

사회적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지지 척도로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 당 6-7문항으로 전체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7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6이었다.

청소년용 성격 강점 척도(VIA-Youth).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용 성격 강점척도(Value in Action-Youth: Peterson & Seligman, 2004)를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2009)이 번안한 것을 연구자가 원문을 참조하여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4개 강점 중 희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와 “나는 뭔가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희망을 포기한다(역채점)”이다. 5점 척도로 “매우 나와 비슷하다”(=5) 혹은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1)에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68이었다.

개정판 다차원적 대처척도. 문제해결 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개정판 다차원적 대처 척도(전경구, 김교현, 서경현, 이민규, 준비 중: 서경현, 전경구, 2004에서 재인용)의 하위척도인 적극적 대처를 사용하였다. 4문항으로 7점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문항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쏟는다.” 및 “나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이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5였다.

심리적 안녕감.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표준화 한 것으로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및 개인적 성장이란 6개의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Ryff와 Keyes(1995)가 각 차원별로 추천했던 3개의 문항들을 뽑아 구성한 총 18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1이었다.

절차

각 질문지를 학급단위로 수업시간에 실시하였다. 실시시간은 30분 내외였다.

자료분석

기술 통계치와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고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통계적 검증은

SPSS for Windows(version12.0)와 AMOS 7.0을 사용하였다.

결 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변인들 간 상관

표 1은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 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의 평균은 모두 중간점수인 4이상으로 나타났고 희망의 평균도 중간점수인 3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 희망, 문제해결 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을 중간이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각 변인들에서 평균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지지, 희망, 문제해결 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의 상관을 확인한 후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들에서 남녀 간 평균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에 각 변인의 남녀 평균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을 사용하기위해 변인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042에서 -.675의 범위이며 첨도는 -.085에서

표 1. 관련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N=267)

변인	전체평균(표준편차)	왜도	첨도	남자평균(SD)	여자평균(SD)
사회적지지	5.15(1.00)	-.09	-.72	5.07(.94)	5.22(1.05)
희망	3.59(.93)	-.38	-.18	3.64(.92)	3.54(.95)
문제해결대처	5.04(1.04)	-.23	.11	5.14(1.00)	4.93(1.07)
심리적안녕감	4.86(.75)	-.40	.23	4.90(.74)	4.82(.78)

-792의 범위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사례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경우, 왜도가 2를 넘지 않으며 첨도가 7을 넘지 않으면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본다 (West, Finch, & Curran, 1995). 따라서 본 연구 모형에서는 정규성을 가정하고 최대우도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희망, 문제해결 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은 서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표 2에 변인들 간의 상관을 제시하였다.

연구모형 분석결과

먼저 측정변인이 적절하게 이론변인을 측정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및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을 측정변인으로 하였고, 희망은 2문항, 문제해결 대처는 4문항을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6개 하위요인을 3개 측정변인으로 합산(parceling)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각 측정변인들의 해당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들은 모

두 유의하여 측정변인들은 각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고 있었고(표 3), 측정모형에 대한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도 $\chi^2 = 104.23$, $df=59$, TLI=.97, CFI=.98 그리고 RMSEA=.054로 수용할 만 하였다.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로는 표본 크기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모형의 오류가 적을수록, 모형이 간명할수록 값이 증가하는 TLI와 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한 비중심적 χ^2 분포를 바탕으로 하여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CFI 및 모형오류와 간명성을 동시에 고려한 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대략 0.9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홍세희, 2000). 또한 대략적인 기준으로 RMSEA < .05이면 좋은 적합도(close fit), RMSEA < .08이면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 RMSEA < .10이면 보통 적합도(mediocre fit), RMSEA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나타낸다(Brown & Cudeck, 1993: 홍세희, 2000에서 재인용).

다음으로 본 연구의 가설모형을 검증하였다. 우선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문제해결 대처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완전매개 모형(모형 1)을 구성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99.25$, $df=62$, TLI=.91, CFI=.93 그리고 RMSEA=.091로 보통 적합도(mediocre fit)를 나타

표 2.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N=267)

요인	1	2	3	4
1. 사회적지지	-			
2. 희망	.38*	-		
3. 문제해결 대처	.47*	.40*	-	
4. 심리적 안녕감	.62*	.58*	.58*	-

* $p < .01$

내었고 경로계수는 모두 유의하였다. 그림 1에 완전매개모형과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 2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59.78$, $df=61$, $TLI=.94$, $CFI=.95$ 그리고 $RMSEA=.078$ 로 괜찮은 적합도(reasonable fit)를 보였고 경로계수도 모두 유의하였다. 그림 2에 모형 2와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가 문제해결대처 방식에 직접영향을 주는 경로를 추가하여 모형 3을 구성하였다. 모형 3의 적합도는 $\chi^2 = 144.73$, $df=60$, $TLI=.94$, $CFI=.96$ 그리고 $RMSEA=.073$ 으로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고 경로계수도 모두 유의하였다. 모형 2와 모형 3의 χ^2 차이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Delta\chi^2(1)=15.05$, $p < .001$) 모형 3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가 문제해결대처와 심리

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와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모두 추가하여 부분매개 모형(모형 4)을 구성하여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 모형 4의 적합도는 $\chi^2 = 104.23$, $df=59$, $TLI=.97$, $CFI=.98$ 그리고 $RMSEA=.054$ 로 수용할 만하였고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하였다. 그림 4에 연구모형 4와 경로계수를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 3과 모형 4의 χ^2 차이 검증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Delta\chi^2(1)=40.50$, $p < .001$) 모형 4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모형 4의 간접효과(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Bootstrapping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표 4). 따라서 본 연구 모형 검증결과, 사회적 지지는 희망과 문제해결대처를 부분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고 희망은 문제해결대처를 부분매개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표 3.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측정변인	잠재요인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정서적지지 <--	사회적지지	.95	1.01	.04	26.76**
정보적지지 <--	사회적지지	.90	.92	.04	23.24**
물질적지지 <--	사회적지지	.86	.90	.04	20.59**
평가적지지 <--	사회적지지	.91	1.00		
희망1 <--	희망	.61	1.00		
희망2 <--	희망	.84	1.34	.17	7.89**
대처1 <--	문제해결대처	.63	1.00		
대처2 <--	문제해결대처	.68	1.00	.12	8.47**
대처3 <--	문제해결대처	.59	.92	.12	7.62**
대처4 <--	문제해결대처	.75	1.17	.13	8.94**
심리1 <--	심리적안녕감	.65	1.00		
심리2 <--	심리적안녕감	.75	1.33	.13	10.16**
심리3 <--	심리적안녕감	.75	1.47	.15	10.1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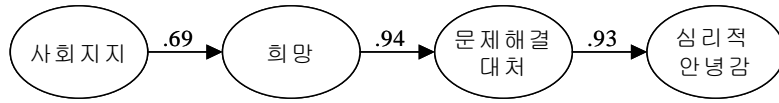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적 지지가 희망, 문제해결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모형 1)

*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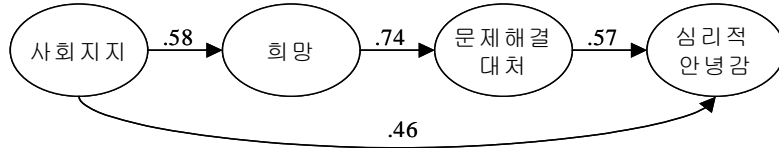


그림 2. 사회적 지지가 희망, 문제해결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모형 2)

*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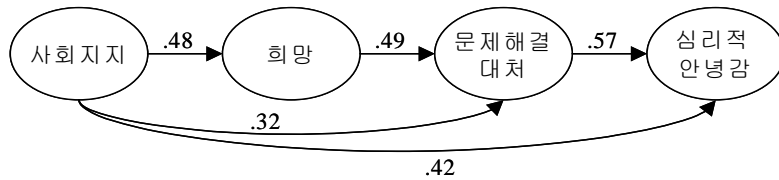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 지지가 희망, 문제해결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모형 3)

*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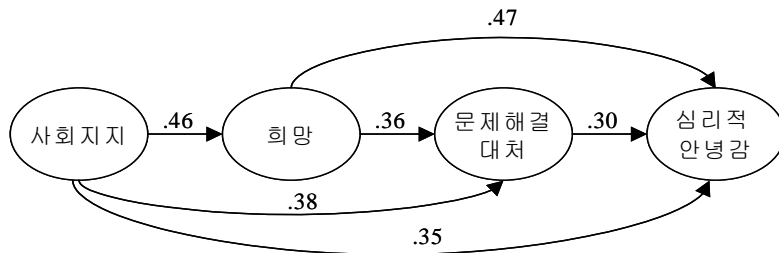


그림 4. 사회적 지지가 희망, 문제해결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모형 4)

* 모든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이며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 모형 4의 간접효과(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결과

	사회적 지지	희망
문제해결대처	.16*	
심리적 안녕감	.38*	.11*

* $p < .01$, 추정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의 관계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여 검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하며, 그러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또다시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문제해결대처를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하나의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여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문제해결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수용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희망과 문제해결대처가 부분매개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기가 신체적, 인지적 및 사회정서적인 면에서 주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발달적 이행기로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기에 삶의 만족이나 긍정정서를 얼마나 경험하는지를 측정하는 쾌락주의적 의미의 안녕감 보다는, 도전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고 변화시키느냐에 초점을 둔 자기실현적 의미의 심리적 안녕감(Ryff & Singer, 2003)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한국 청소년의 안녕감에 사회적 지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들(김청송,

2009; 박영신, 김의철, 2009)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나 과정이 매개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안녕감에 희망이 중요한 변인이란 연구들(김택호, 김재환, 2004; Snyder, 2004)과 더불어 사회적 지지가 희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과들(김경옥, 조복희, 2001; 장효진, 임정하, 2010; 태영숙, 강은실, 이명희, 박금자, 2001; Wang, Chang, Shih, Sun, & Jeng, 2006)이 있었는데, 반면 몇몇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희망과 안녕감 사이를 조절할 가능성이나(Khan & Husain, 2010) 사회적 지지가 희망과 안녕감 사이를 매개할 가능성(김남희, 2006)도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희망의 개념과 유사한 낙관성과 관련된 연구 중 사회적 지지와 낙관성 그리고 안녕감사이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델을 사용해 알아본 Ekas, Lickenbrock와 Whitman(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낙관성과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지 않았으며 낙관성이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Karademas(2006)의 연구에서도 낙관성은 사회적 지지와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이들은 사회적 지지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게 만들어 안녕감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희망이 문제중심 대처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조현주, 2010; Chang, 1998)도 고려하여 사회적지지, 희망, 문제해결대처 및 심리적 안녕감사이의 직선적 이중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매개변인이 2개 이상이므로 이들 간의 관계모형을 검증하기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완전매개를 가정한 모형 1에서 경로계수는 모

두 유의하였으나 전반적인 적합도가 보통수준 (mediocre fit)이어서 수정지수를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였더니 적합도는 괜찮은 적합도 (reasonable fit)로 증가하였고 경로계수도 모두 유의하였다. 즉, 지각된 물질적, 정서적, 정보적 및 평가적 지지는 희망을 촉진하고 희망은 문제해결 대처를 촉진하여 자기실현적 의미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한편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안녕감의 어떤 측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문제해결 대처를 통해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통제력 및 자율성 등은 촉진될 수 있지만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은정적이고 신뢰로운 대인관계를 갖는 것)의 경우는 문제해결대처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적 지지가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결과에서 나왔던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가 문제해결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 희망이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로를 모두 포함하여 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든 경로계수는 유의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도 가장 좋았다. 이는 사회적 지지의 물질적 혹은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대처에 직접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희망의 경우 문제해결 대처를 통하지 않고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번째 모형이 좀더 간명하고 적합도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의 부분매개 모형이 가장 현실적으로 수용할만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들에서 지적했듯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증진에 사회적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부

모, 친구 및 선생님 등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및 평가적 지지는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덕목인 희망을 촉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하며 궁극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장효진과 임정하(2010)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부모, 교사, 친구 중 부모의 지지를 가장 높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지지원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희망과 가장 상관이 높았던 것은 친구의 지지였다. 즉, 청소년들은 점차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친구들 간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는 환경이나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희망뿐 아니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이 희망이란 성격강점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조현주(2010)의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스트레스나 역경에 직면해서 좌절하기보다는 도전하여 긍정적으로 해결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대처자원인 동시에 개인의 긍정적 특성인 성격강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격강점에 대한 연구들에서 희망은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강점 중 하나였으며(Park, Peterson, & Seligman, 2004; Park, Peterson, 2006) Snyder(2004)는 희망이 안녕감에 특히 확고한 예측인자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여기에 사회적 지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제 중심의 적극적 대처는 우울을 예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충동적 문제행동, 알코올 장애 및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에 더 효과적(Lohnam & Jarvis, 2000; 한상철, 2001에서 재인

용)이라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지지와 희망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제중심 대처를 촉진하는 것은 청소년의 우울이나 비행행동 등 부적응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최근 Wood와 Joseph(2010)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없는 것이 10년 후의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이었다. 즉, 사전 우울, 성격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통제한 후에도 심리적 안녕감이 낮은 사람들은 10년 후 우울해질 가능성이 두 배 이상이었다. 즉,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이후 우울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 희망을 측정하는 문항은 대부분의 희망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Snyder의 2요인 희망이론에 근거한 척도가 아니었다. Snyder(1994:조현주, 2010에서 재인용)는 인간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이라고 가정하고,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적 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용 성격 강점척도(Value in Action-Youth: Peterson & Seligman, 2004) 중 희망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Snyder의 희망에 대한 개념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 척도 간에는 희망에 대한 공통된 개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Snyder의 희망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는 일관됨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 모형은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구성된

모형으로 변인 간 인과관계를 직접 검증하지 못하고 추론에 의존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변인간의 인과관계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해야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옥, 조복희 (2001). 뇌졸중 환자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희망과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4(1), 58-72.
- 김남희 (2006). 희망과 사회적지지, 대처방식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웰빙의 구성개념 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649-665.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현준 (2009).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주도적 대처를 매개효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성원, 한종철 (1996).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2), 233-246.
- 박영신, 김의철 (2009). 한국청소년의 행복: 심리적, 관계적, 경제적 자원과 학업성취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3), 399-429.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경현, 전경구 (2004). 영적 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장효진, 임정하 (201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67-78.
- 조한익 (2010). 초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희망 및 우울증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심리연구*, 24(1), 161-181.
- 조현주 (2010). 희망이 생활스트레스와 정신병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3), 839-852.
- 태영숙, 강은실, 이명희, 박금자 (2001). 암환자가 지각한 사회적지지, 희망과 삶의 질과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4(2), 219-231.
- 한상철 (2001). 사회적 지원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이 청소년의 우울 및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21.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Chang, E. C. (1998). Hop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ping in a college student population: Some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7), 953-962.
- Ekas, N. V., Lickenbrock, D. M., & Whitman, T. L. (2010). Optimism,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0, 1274 - 1284.
- Glass, K., Flory, K., Hankin, B. L., Kloos, B., and Turecki, G. (2009). Are coping strategies, social support, and hope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hurricane Katrina surviv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8(6), 779-795.
- Karademas, E. C. (2006).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The mediating role of optim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1281-1290.
- Khan, A., & Husain, A. (2010).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positive psychological strength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Reports*, 106(2), 534-538.
- Park, N., & Peterson, C. (2006).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 891-910.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9).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 강점과 덕목의 분류.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배수현, 안선영 역). 서울: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원전은 2004년에 출판).
- Roesch, S. C., Duangado, K. M., Vaughn, A. A., Aldridge, A. A., Villodas, F. (2010). Dispositional hope and the propensity to cope: A Daily diary assessment of minority adolesce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6(2), 191-198.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Ryff, C. D., & Singer, B. (2003). Ironies of the human condition: Well-being and health on the way to mortality. In L. G. Aspinwall & U. M. Staudinger (Eds.), *A psychology of human strengths: Fundamental ques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a positive psychology*. Washington DC: APA.
- Snyder, C. R. (2004). Hope and other strengths: Lessons from animal far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24-627.
- Wang, L., Chang, P., Shih, F., Sun, C., & Jeng, C.(2006). Self-care behavior, hope, and social support in Taiwanese patients awaiting heart transplantation.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61*, 485-491.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56-75.
- Wood, A. M. & Joseph, S. (2010). The abs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eudemonic) well-being as a risk factor for depression: A ten year cohor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2*, 213-217.

원고접수일: 2011년 3월 21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5월 20일

게재결정일: 2011년 6월 9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1. Vol. 16, No. 2, 297 - 31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Doori Won

Dep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to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structure equation modeling. The hypothetical model was tested using survey method among 267 adolescents.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social support facilitated hope, hope facilitated problem-solving coping, and problem-solving coping facilitate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So the hypothetical model of this study was accepted. More specifically,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In this study, the process that social support affects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is specified by the mediating role of the hope and problem-solving cop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social support, hope, problem-solving coping,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